



웹진으로
만나는
우리가족

우리가족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은행 행내보

05

2021 May
Vol. 292

가족의 행복



우리금융그룹

가족의

행복



우리은행 WOORI BANK

우리가족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은행 행내보

05

2021 May Vol. 292

제15기 <우리가족> 편집위원

- 김선형 테헤란로금융센터 계장
- 김현정 서초남지점 계장
- 박영선 삼풍지점 계장
- 이다슬 신중동역지점 계장
- 이용기 대치남지점 계장
- 이해주 상동역지점 계장
- 임지현 삼성로지점 계장
- 조은빈 혜화동지점 계장
- 조재민 구로디지털밸리지점 계장
- 황상현 인사부(파견) 대리

발행일 2021년 5월 14일
 창간일 1998년 12월 1일
 발행인 권광석
 편집인 황선우
 발행처 (주)우리은행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44
 담당자 브랜드전략팀 박해철 과장(02-2002-3952)
 기획+디자인 (주)이팝
 인쇄 엔투디프린텍



SPECIAL THEME

03	<u>스페셜 테마</u>	가족
04	<u>스페셜 에세이</u>	이력서, 가족, 코로나19
06	<u>스페셜 리포트</u>	우리가족의 행복은?

10	<u>WOORI NEWS</u>	우리은행 뉴스
14	<u>우리가족에게</u>	자신감으로 하면 한대 그리고 된다!
18	<u>두근 DO GOOD</u>	홍춘문예
22	<u>WOORI 人 SIDE</u>	기대와 신뢰를 받는 운용사로의 발전 우리자산운용
24	<u>디지털 나들이</u>	메타버스(METAVVERSE)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세계
26	<u>우리메신저</u>	우리가족 마음 특!
28	<u>우리의 온도</u>	지구는 WOORI가 지킨다 시즌3 일상 속 ESG!
30	<u>함께 꾸는 DREAM</u>	지금은 캠핑 시대,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캠핑의자 만들기
34	<u>꽃피우리</u>	불가능했던 오입금을 반환되게 해주셨습니다
36	<u>여행출아行</u>	1980~2021 설렘, 그 추억이 공존하는 곳, 제주도
40	<u>心の hands</u>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이라서 더 불편한 우리 가족
42	<u>마음심포</u>	당연한 것은 없다. 감사함이 있을 뿐
43	<u>편집실 통신</u>	

스페셜 테마



가족 :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행복은 기쁨'이라는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쁨을 만들어 갈,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바로 가족임이 분명하다.

어느 조사에서 한국인들은 떠올릴 때 행복한 단어로 '건강'과 '가족'을 꼽았다. 두 단어의 연관관계는 평상시에는 너무 가까이 있어 자칫 소중함을 자각하지 못한 요소는 아닐런지, 새삼 다시 생각하는 소중한 가치.

“우리 가족,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이력서, 가족, 코로나19

글. 브랜드ESG그룹 박해칠 과장



최근 입사지원 이력서 속 자기소개 트렌드는 가족이나 제3자에 기대어 나를 표현하기보다, '나' 자신이 함양한 능력에 대해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이 추세라고 한다.

개인적인 역량을 중심으로, 확장된 의미에서의 사회 생활 적응능력을 평가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득 한창 '글짓기'에 매진했던 구직 시절이 떠오른다.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때에도 결국 '나'를 얼마나 잘 소개하는 문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가장 고민했던 것 같다. 표현을 참고하고자 선배들의 지원서 샘플을 뒤적이었다 보면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게 된 표현이 종종 보였던 기억이 난다. 작성자에 따라 다소 내용이 디자인되기는 했지만 '훌륭하고 근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사이에서 부족함 없이 화목하게 큰 '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정형화된 틀 속의 문구지만 내재적으로는 현재의 나를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이란 존재에 대한 부각,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물'로서의 나 자신이 담겨 있다고 느꼈다. 결론적으로 '가족'을 나타낸 것이다. '나'라는 인물이 가족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이를 통해 '회사'에 어떤 이바지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표현방식이었던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력서로 만난 인생 선배들은 업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이력서에 가족을 거론했다. 전통적 가치의 가족이 갖는 의미를 회사에 부여하며 나는 올바른 교육을 받아왔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업무 수행의 시스템 규범 안에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가족'의 의미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식도락을 삶의 큰 가치로 여기는 나에게 있어 가족이란, '맛있는 음식을 가장 먼저 함께 먹고 싶은 사람들'이다. 전통적 '식구(食口)'의 확장형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동료들을 통해 알게 된 맛집은 꼭 기억해냈다가 같이 가고, 유명한 가게에서 오래 줄 서야 구할 수 있는 맛있는 간식은 꼭 같이 먹어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각자의 '가족'은 다양하나 본질은 결국 '공동체'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감성적 교류가 결국 가족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통적 의미의 가족도 그와 다르지 않다.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한 체계로 혈연, 인연, 입양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 가운데 친족원의 범위를 한정하는 개념이 가족이라고 했다. 다만, 현대에는 유학이나 취직 등 외부적, 사회적 요인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생활하기도 하므로 여기서는 '심리적 공동체'로 칭하는 것이 맞을 듯 하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많은 변화 키워드의 핵심에도 '가족'이 있다. 비대면 일상이 강화되면서 집에서 이뤄지는 많은 사회생활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나 또한 부서 내에서 교대로 재택근무를 진행하며 새로운 업무적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집과 일의 경계가 다소 모호해지는 단점은 있지만, 중식시간에 집에서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한 후에 오후 업무를 시작하는 삶, 퇴근 시간이 되면 업무PC를 끄며 밥술에 밥을 얹힐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퇴근할 배우자를 기다리며 요리를 하는 마음이 이런 것일까?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따뜻한 밥 한 술 일찌감치 같이 나눌 수 있는 묘한 공존에서 있는 삶이다.

본격적인 막바지 봄, 5월은 부쩍 '가족'과 관련한 날이 많다. 5월 5일은 자녀를 챙기고, 8일은 부모를, 17일은 성년이 된 이들을 축하해주고, 21일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대구에 계신 할머니의 생신도 이 시기에 찾아온다. 생각이 난 김에 글을 쓰다 말고 할머니께 영상 통화를 걸어본다. 전화 목소리는 잘 듣지 못하기에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영상 통화를 걸었는데, 할머니는 간만에 보는 손자 얼굴을 보셔서 그런지 몹시 신이 나셨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할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 그저 손자와 손자며느리의 인사가 기쁘실 따름이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따뜻한 봄이 가기 전에 열린 대구에 계신 '가족'을 뵈러 가 봐야겠다.☺

우리가족의 행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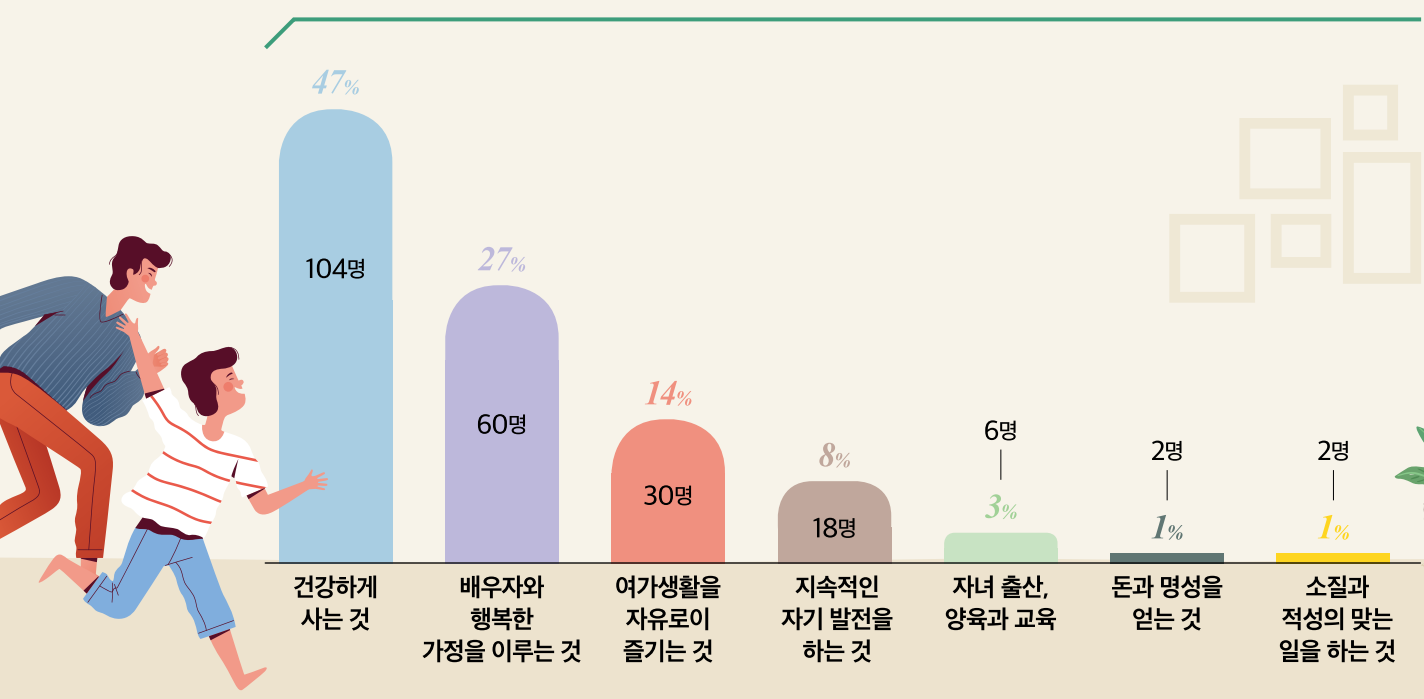
한국인들은 '행복'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행복한 단어'로 '건강', '가족'을, 다음으로 '돈'과 '여행'을 꼽았다는 연구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조사가 한국인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조건을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족에게도 묻습니다. '행복'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나요?

정리. 편집실

함께 만드는 <우리가족>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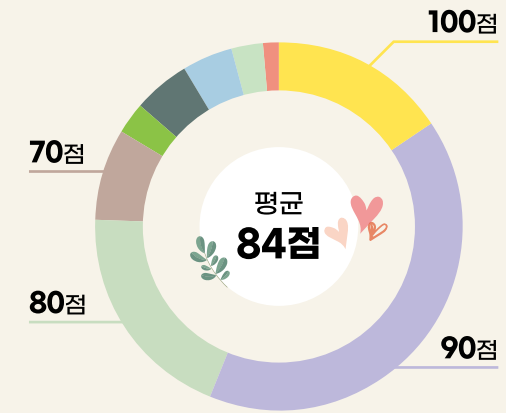
- 참여인원 우리가족 222명 • 조사기간 2021년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 조사방법 행내포털에서 실시
- 참여방법 행내 전체 게시판에서 '함께 만드는 우리가족' 팝업창이 보이면 클릭하세요!
다음 호에도 재미있는 설문으로 찾아갑니다.

Question. 01 | 내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복'을 한 가지 골라본다면?



Question. 02 | 나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 중 몇 점인가요?

100점	15%	35명
90점대	41%	90명
80점대	19%	43명
70점대	8%	18명
60점대	3%	6명
50점대	5%	11명
40점대	5%	10명
30점대	3%	6명
20점대	1%	3명



Question. 03 | 나의 행복지수를 위와 같이 정한 이유는?

100점

- 최근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 건강한 데다, 하고싶은 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행복합니다.
- 친구따라 투자한 자산이 쪽쪽 올라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 결혼 준비중입니다!
- 주변 사람들,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어서요.

90점

- 여자친구랑 자주 싸우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요.
- 노력이 부족한 일상을 반성하며 10점을 차감합니다.
- 직장인이 가지게 되는 무게감과 실적 스트레스, 하지만 직장인이어서 행복합니다!
- 코로나19에 자유롭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아쉽...
- 지금도 행복하지만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좀 더 노력하고 운동하면 100점이 될 듯!

80점

-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 게다가 주말부부라 아이들과 함께할 여가가 현저히 줄었다.
- 뭔가 아직까지 다 이룬 느낌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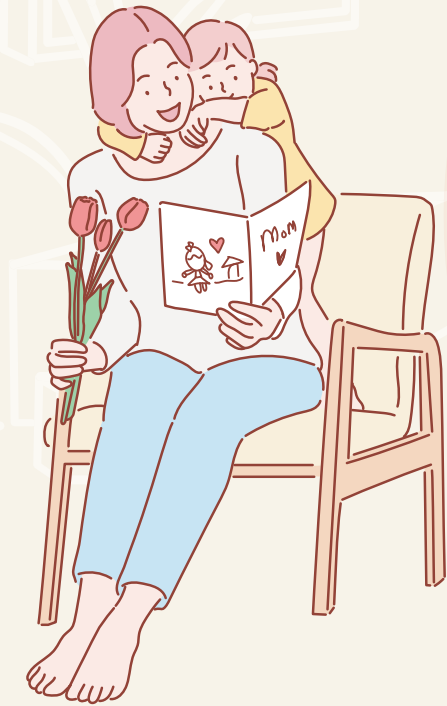
70점대 이하

- 노후에 대한 고민, "나는 여유자금이 충분한가?"
- 앞으로 더 행복할 수 있을 여지가 많아서요.
- 여가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꿈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느낌이 드네요.

Dear 우리 가족에게

짧은 한마디 혹은 장문의 편지 한 장.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우리 가족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한 메시지.
5월, 더 용기내어, 전해보세요.

정리.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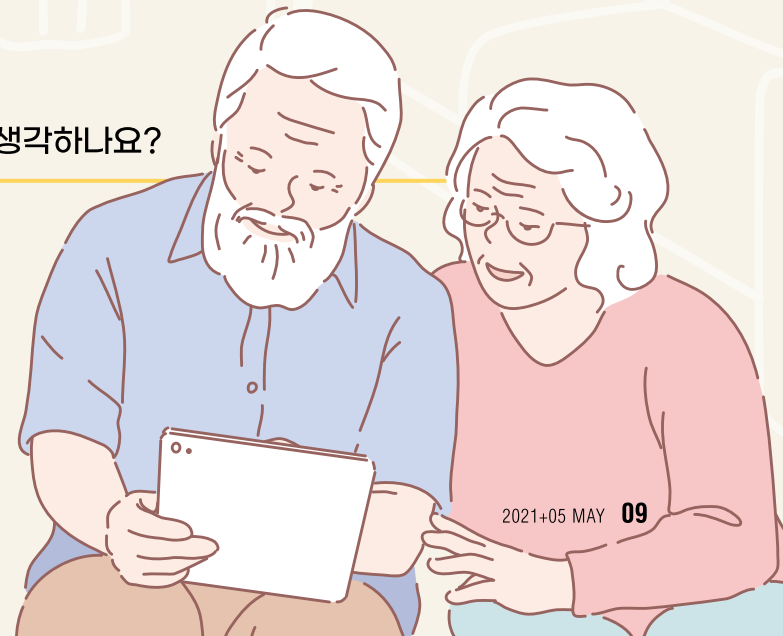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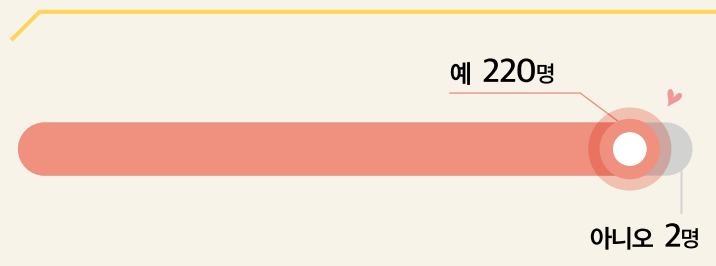
- 가장 소중한 보물, 나의 가족. 꼭 건강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모든 이에게 인정받고 꼭 필요한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해~~~
- 내 가족임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늘 배려로 외조해 주는 남편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내딸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자.
- 따뜻한 말과 관심을 한 번 더 표현하며 살아가자.
- 건강이 최고의 행복이다. 행복의 조건이 낮을 수록 더욱 행복하다.
-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되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겨준다면 그건 나의 행복일 것입니다.

- 행복해야 웃는 것이 아닌, 웃어야 행복해집니다.
- 사소한 일상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쁜 일상 뒤 달콤한 휴일에 더 행복할 수 있기를... 엄마가 더 노력할게~
- 퇴근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만 듣고도, 오늘 엄마 기분이 어떨지 맞춰주는 완벽한 내 편이 저에게는 4명이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안아플 큰딸, 작은딸, 막내딸~~~***
엄마에게 편지로 내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다는 아홉살 딸아이의 손편지를 읽고 밤새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 평생 무선 마음 충전기!! 사랑하는 우리 가족~!! 정말 사랑한다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고맙고, 엄마가 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살자 ***



-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쳇바퀴처럼 굴러하는 일상이 지루하다고 느낄때도 있지만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걸 최근에 알게된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매일매일 서로 사랑하며 선물처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 은퇴하면 펜트하우스에서 여유있게 살아보자 ㅎㅎ
- 나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항상 고마워~
- 뽀짝 뽀짝 빛나는 우리 가족! 지금 만큼만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 사랑하는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 지금까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서로 노력했듯이 앞으로도 이 모습 그대로 함께 다 헤쳐가길 바랍니다!
- 저에게 있어 가족은 당연한 존재라 더욱 더 표현이 쑥스러웠던거 같습니다.
- 항상 건강하게 재밌게 살자요! 사랑해~ 우리 가족!
- 도착하기 위해 살지말고, 그저 옆을 보며 감사히 살자.
- 우리가족 좋은 일만 가득가득!! 행운 가득한 일만 가득가득!!! 행복이 넘쳐난다~~~
-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 함께하는 여정, 오늘도 감사합니다.
- 이번 주말에도 캠핑이다!
- 신랑!!! 20년 전보다 지금 더, 그리고 지금보다 20년 후 신랑님을 더 사랑할것 같습니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 '행복'이라는 단어 속에 난 가족이 함께 라는 뜻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곁에 있어서 큰 울타리가 되어주는 신랑과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준 아들과 우리 모두 지금처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

나의 '가족'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사진으로 보는 CEO 동정

2021. 04. 06

경영협의회



2021. 04. 07

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기금관 준공식 및
기금관영업소 격려방문



2021. 04. 09

한국거래소 방문



2021. 04. 12

대한적십자사 방문



2021. 04. 20

KT AI ONE TEAM 협약



2021. 04. 21

롯데카드 업무위수탁 협약



2021. 04. 21

지구는 WOORI가 지킨다 시즌3



2021. 04. 27

EBS미디어 업무협약



2021. 04. 28

디지털 혁신 Forum



WOORI NEWS



1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현장경영 재개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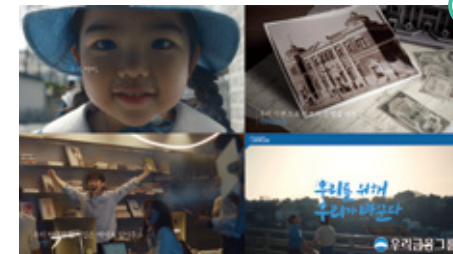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자회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모든 자회사와 순차적으로 임직원 간담회를 실시했다. 더불어 신규 편입 자회사인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등 4월 9일부터 현장경영 재개에 나섰다. 손 회장은 임직원 간담회에서 “모든 자회사가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종합금융그룹 체제에서 최고의 시너지를 내고 업권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원들과 해당 자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손 회장이 자회사 실무급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며, 2분기부터는 기존 자회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그룹체제의 결속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2 우리은행, 네이버와 디지털 혁신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은 네이버와 금융·IT를 융합한 디지털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월 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으로 우리은행과 네이버는 금융과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신사업 기회 공동 발굴 등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MZ세대를 위한 금융과 플랫폼 서비스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및 공동 마케팅 ▲우리은행과 네이버 인증서 이용 확대 협력 ▲네이버 전자문서/자격증 서비스를 연계한 이용자 혜택 강화 ▲B2B2C 대상 금융과 플랫폼 융합 서비스 패키지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우리금융, 그룹SNS에 첫 번째 브랜드 캠페인 영상 공개



우리금융지주는 그룹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을 알리기 위해, 첫 번째 브랜드 캠페인 '우리를 우리가 바꾼다'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우리금융그룹이 '우리'라는 말의 특별한 힘을 믿고,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이 되기 위해 실제 해온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 자본으로 세운 최초의 은행 '대한천일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의 위기에 앞장섰던 대구 코로나 긴급지원 사례와 석탄산업 지원중단 선언,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디노랩과 마이데이터까지 '고객중심과 혁신'에 대한 내용이다.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5일 디지털시대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그룹 공식 SNS채널을 신설하고, 신규 광고 캠페인 영상 프리런칭 일주일만에 80만 조회수를 달성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4 우리은행, Si뱅크 개발 나선다

우리은행은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 영상합성 기술 스타트업 라이언로켓과 Si뱅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16일 체결했다. Si뱅크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과 음성의 합성을 통해 특정인물의 외모, 자세 및 목소리를 반영해 가상의 은행원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Si뱅크와 상담하는 고객의 음성을 분석하고 이해해 실제 은행원이 상담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Si뱅크는 직원 연수프로그램(Si교수) 및 행내 방송(Si아나운서)에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키오스크 Si상담원 역할을 수행할 우리은행 직원을 선발해 직원의 외모와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WOORI NEWS

5 우리금융지주, '으쓱(ESG) 캠페인' 실시

우리금융지주는 ESG경영 실천과 ESG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으쓱(ESG)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으쓱(ESG) 캠페인은 ESG에 대한 임직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식개선 및 ESG 실천으로 건전한 ESG문화를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우선, ESG인식 개선을 위해 우리금융그룹 전직원이 'ESG경영' 동참을 서약한다. 사내 메일을 통해 대내외 ESG 주요동향에 대한 교육을 받고, ESG 관련 콘텐츠를 상시 노출시켜 홍보 및 교육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임직원들이 솔선수범해 직장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 가능한 환경보호 캠페인도 전개한다.



6 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비대면 자녀계좌 조회 서비스 출시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 비대면으로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우리 아이(Eye) 계좌조회 서비스'를 4월 8일 출시했다. 우리 아이(Eye) 계좌조회 서비스는 부모 명의 WON뱅킹을 통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입출식예금 ▲정기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거래내역과 계좌잔액을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부모 및 친권자를 동시에 충족하는 법정대리인이 확인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WON뱅킹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 및 스크래핑을 활용한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7 베트남우리은행, 박닌지점 신설로 현지 리테일 영업 확대

우리은행은 베트남 박닌에서 베트남우리은행 박닌지점을 지난 4월 26일 개점했다. 베트남우리은행은 2017년 6월 박닌지점을 신설하고 오펜 공업단지에서 삼성전자 등 기업고객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베트남우리은행은 박닌지역 리테일영업 확대를 위해 시내에 새로운 박닌지점을 신설하고, 기존 박닌지점은 삼성전자출장소로 전환하여 오펜 공업단지 내 고객들에게 금융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새로운 박닌지점 신설과 기존 지점의 삼성전자출장소 전환으로 베트남 지역에 베트남우리은행은 총 15개의 영업점 네트워크가 분포되어 있다.



8 우리은행, '무공해 친환경 전기차' 도입 확대

우리은행이 ESG경영 실천을 위해 전국 주요 도시 영업점에서 사용 중인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2030년까지 전환하겠다고 4월 27일 밝혔다. 현재 우리은행 본점은 전기차 17대, 전기차 충전소 8기를 운영 중이며, 오는 6월까지 전국 영업점 10곳에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30년까지 보유 중인 업무용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는 환경부 주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K-EV100)' 캠페인에도 동참하여, 모든 차량 전환을 목표로 매년 친환경 차량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WOORI NEWS

9 베트남우리은행, '외국계 은행 최초' 차세대 금융결제망 공동 구축

우리은행은 베트남 중앙은행 주도 신규 금융결제망 추진사업에 외국계은행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차세대 금융결제 공동망(ACH, Automated Clearing House)'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4월 13일 밝혔다. 베트남우리은행은 베트남 정부 주도 사업인 비현금 결제 수단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진행된 '차세대 금융결제 공동망' 시스템 구축에 선정된 베트남 9개 시중은행 중 외국계 은행으로 유일하게 포함되었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공과금, 카드대금 등 납부 시 베트남우리은행 고객의 계좌뿐만 아니라 참여은행 계좌로도 결제가 가능하여 신규 고객유치에 용이하다.



10 우리카드,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 획득

우리카드가 4월 4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규격인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14001 인증은 기업의 경영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엄격하게 심사해 부여하는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이다. 이번 인증 획득은 우리카드가 조직의 체계와 운영에 있어 환경경영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관련 규격 및 지침에 따라 환경 개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카드는 친환경 경영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세스 구축에 힘써왔고, ISO14001 인증을 통해 이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게 됐다.



11 우리금융캐피탈, 소상공인 대상 '전기차 전용 금융상품' 출시

우리금융캐피탈은 4월 1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차주를 위한 '포터EV, 봉고EV 전기차 전용 금융상품'을 출시했다. 우리금융캐피탈을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돕기 일환으로 전기차 금융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금융캐피탈 전기차 할부와 리스 상품은 연 2.9% 초저금리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국가나 지자체 지원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가격 범위 내 대출이 가능하다. 업계에선 상용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 화물차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적용하면 내연기관차 모델과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 연료비·정비료 등 유지비용이 저렴해 소상공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2 우리카드, 고객 패널 '우리프렌드' 비대면 발대식 개최

우리카드는 4월 7일 고객 중심 경영 실천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고객 패널 '우리프렌드' 비대면 발대식을 가졌다. '우리프렌드'는 외국인, 고령자, 대학생 등 금융 취약계층을 포함해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우리카드 회원 10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통해 우리카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사용 및 평가, 금융 취약계층 케어 서비스 및 인프라 점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우리카드 허정진 부사장은 "고객패널의 운영철학이 '듣고, 행동하고, 바꾸다'인 만큼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통해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감으로 하면 한다! 그리고 된다!

광주전남영업본부 광주VG 진월동지점

승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자신감'의 유무에서 비롯된다. 성공을 꿈꾸는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실패를 벗어나 계속해서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말로만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실제 결과로 입증하는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실패를 벗어나 계속해서 이기는 방법을 습득하는 이들이 모인, 광주VG 진월동지점의 이야기를 전한다.

글: 김민선 사진: 정우철(스튜디오집)



지역 그리고 기업과 함께해 온 성장

진월동지점은 지역과 함께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제1금융권 은행이 지역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특이한 일이지만 지역 성장에 진월동지점이 함께했다. 1989년 백운동지점으로 문을 연 진월동지점은 15년 전 현재 지점의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됐다. 이때 인근 중소기업들과의 거래에 물꼬가 트면서 거래 기업의 성장이 곧 진월동지점의 여신 증대로 이어져 온 것. 지역의 건설업체가 서울로 본사를 이전할 만큼 성장해 기금사업자 대출 및 부동산개발금융으로 진월동지점의 여신 증대를 통한 총량 증가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됐다.

한영섭 지점장은 "엄밀히 말하자면 초창기부터 함께 해 온 지역 기업의 성장이 지역 사회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진월동지점 또한 지역과 함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그리고 고객과 성장하며 진월동지점은 2019년 우리은행 내 첫 복합금융(PF)을 진행해 볼 기회도 얻었지요. 과거에 열악한 환경의 점포에서, 이제는 나주로 나가는 길목을 지키며 지역 그리고 영업 환경에서 또 다른 기회와 성장을 엿보고 있습니다."



곽진옥 과장

최명현 대리

윤선영 부지점장

한영섭 지점장

양윤성 대리

김이슬 대리

천성용 대리

김윤형 과장

조미숙 차장

임혜진 주임

국인식 부지점장



| 기억력과 친화력이 '갑', 예금팀 |

전라도의 '정'이란 게 처음 만나는 사이도, 원래 아는 사이처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인데요. 처음 오시는 고객님도 자주 오시는 고객님처럼, 한번 오신 고객님도 기억해 내어 어떤 업무를 보실지 앞서 준비해 드리니 CS가 좋은 건 당연한 일이지요.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가 CS도 KPI도 좋은 예금팀이 되기를! 파이팅팅~ 예금팀 사랑해요

'터줏대감'과 환상적인 팀워크의 만남

진월동지점의 한영섭 지점장은 진월동지점의 '터줏대감'으로도 불린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1년간 잠깐의 타 지점 발령을 제외하고는 진월동지점에서만 햇수로 6년 넘게 근무했기 때문이다. 한 곳에 단순히 오래 있어서 얻은 별명이 아닐터. 한영섭 지점장은 터줏대감이라는 별명에 "진월동지점 근무기간도 그렇고, 중소RM에 20년 넘게 활동, 심사역에도 재임하며 기업금융에 오래 있다보니 지역 기업과의 유대관계가 두터워 졌죠. 주요 거래 업체인 건설 업체와의 영업, 키맨 관리를 주로 담당하면서 보니 이러한 별명이 붙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인식 부지점장은 "지점장님은 탁월한 섭외 능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MGM영업을 펼치세요. 지점장님이 직접 발로 뛰시니 내부에서는 뒷받침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 기업 신규 고객이 창출되면 팀원들의 신속한 '후속 작업'이 이뤄집니다. 후속작업이라 함은 팀원들이 그 이후 계수 및 손익 등을 책임지지요. 또, 리테일 목표가 정해지면 전체 직원 간의 소통을 통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영업에 매진합니다. 부족한 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한 협조를 이뤄나가는 팀워크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 언제나 최선을! 종합상담팀 |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자는 모토로 개인대출의 전문가 최명현 대리, SR관리의 일인자 조미숙 차장, 소상공인 대출 전문가 3인방 박진욱 과장과 김이슬 대리, 양윤성 대리, 최강중소 RM 국인식 부지점장이 '최선'을 다해 고객 만족에 정성과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신감, 'S'의 노하우를 아는 이들이 모인 곳

진월동지점은 2019년 상반기 KPI 그룹 1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다. 2020년에도 상반기의 실적을 유지했고, 2021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성적이 잠시 주춤하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움츠러드는 이가 없다. 성공을 맛보았고, 꿈꾸는 자신감이 있기에 모두가 확신하며, 직원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몫을 충실히 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광주VG 내 봉선동지점, 광주금융센터 등 여러 점포에서 양호한 실적이 동반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진월동지점의 약점인 동반성장 부문에 대한 목표달성 부담이 줄어들고 기업여신 증대에 주력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2021년 상반기 기업여신 330억 신규 취급, 금리스왑 3건, 부동산개발금융, 기업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해 올해는 5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향해 가는 중입니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자신감을 위한 '1:1 완벽케어'

한영섭 지점장은 진월동지점에서 한때의 성공에 치솟아 오르는 자신감보다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함을 인식했다. 진월동지점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버티면서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점장의 역할이라고 자신의 자리를 정립했다. 이에 지점장으로 진월동지점에 다시 돌아왔을 때 조직 내 자신감과 성취감이 가득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별로 잘하는 과목, 하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집중하도록 했다. 실제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니 좋은 성적은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부족한 부분들은 지점장이 직접 나서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 임해진 주임을 이를 '1:1 완벽케어'라고 칭했다. "회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기 위해 직원들 모두가 노력하시는 것이 진월동지점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개인 실적표를 기록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노력하며 그 부분을 팀장님과 지점장님께서도 확인해 주세요. 직원들 개개인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지점장님께서 케어해 주시면 완벽할 수 밖에는요. 이러한 단합과 분위기 덕에 직업만족도도 올라갑니다."

"오늘도 진월동지점 직원들과 씨를 뿌리는 중"

조직의 영업 목표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자신감 관리에 초점을 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진정한 '자율영업'을 위해 지점장이 발로 뛰어아 할 일은 몇 배로 늘어났지만 직원들에게는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실패를 벗어나 계속해서 이기는 방법을 습득하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었다.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주특기를 가져라'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살아남기 위한 방법, 때를 준비하라고 하죠. 지점장이라서가 아니라 선배로서 하는 조언입니다. 우리 모두 진월동지점에서만 일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나의 목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과정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점장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영업도 한방에 이익보다 계속해서 추수할 수 있는 성과의 씨를 뿌려야 하죠. 조바심을 내지 않아야 함을 계속 인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씨를 뿌려놓으면 언젠가 싹이 나고 거둬들이는 때가 있을 것이라 믿고 그렇게 진월동지점 직원들과 씨를 뿌리는 중입니다." 이는 지점장 개인을 뛰어넘어 조직 전체가 진정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 내린 결론이다. 어떤 통제와 관리보다 믿고 맡기는 것, 자신감이 신뢰를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성과를 보여준다.



"우리지점에는 인재가 많습니다. 학구파, 노력파가 모인 종합상담팀, 열악함에도 꾸준히 목표를 달성하기 부단히 노력하는 예금팀이 있죠. 투체어스를 담당하는 천성용 대리는 고객들도 인정하는 투자상품 일인자이고요. 기업사업자대출을 척척해결하는 양윤성 대리도 있죠. 고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금창구 모두가 합심한 결과 이번 VOV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달성해 천성용 대리와 김윤형 과장이 시상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성공을 위한 전략과 계획, 방법을 고민하는 지점장과 직원들. 그렇게 성장할, 성장한 인재는 즐거운 조직을 만든다. 실제 진월동지점 직원들은 진월동지점을 "서로 밀고 당겨주는, 웃으면서 영업하고 근무하는 지점"이라 말한다. 그 과정과 성과를 눈으로 확인했기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



한영섭 지점장

봄 춘 문 예

봄바람에 살랑거리는 마음
 집에 있음 무엇하리
 자작시, N행시, 드립백일장으로 숨겨둔 실력을 뽐내보리
 영혼을 담은 내 출품작은 수상작 어디에 있나
 없으면 없는대로 수상 못하면 어떡하랴
 우리가족이 실력 발휘한 작품보며 오늘도 집콕생활 누리보세!

자료 제공: 직원만족센터

장원



워커힐지점 김민석 대리

너없이 봄
 불안한데
 나 혼자
 어떡하랴고
 그걸 승계 만들어...
 ㄷ



"그건 영업점 관단방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N행시 & 자작시 & 드립백일장

수상작



● N행시 부문 ●



브 (부)지점장님
이 대리입니다
지금 승인 부탁드립니다

브 (부)지점장님
이 대리입니다
지금 결제 부탁드립니다

브 (부)지점장님
이 대리입니다
지금 마감 부탁드립니다

목동지점 이지혜 대리



우 리은행을 만난지 30년 머
리 카락이 희끗희끗 젊음은 가고
은 발이 무성해진 지금, 덕분에
행 복하고 고마웠다고 전하고 싶어

여신업무센터 장천영 차장



무 실적인 내 은행 커리어에
 응답할 수 없다
야 나두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갖고 권유해 보는거야!
호 ...혹시 신용카드 있으세요..?

동탄중앙금융센터 유효범 계장



● 자작시 부문 ●

오산금융센터 박주희 대리

엄마라는 이름

날이 세상에 있게해준 사람...
 나에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준 사람...
 사춘기 무뚝뚝한 딸에게 무라하지 않고 차아준 사람...
 항우항시절 힘들때 "괜찮아." "난 네편이다"라고 말해준 사람...
 첫 아이를 낳던 날, 내옆에서 같이 울어준 사람...
 항상 나에게 야깃없이 주지만 더 주려는 사람...
 아름답게 늙어가고, 언제나 소대같은 순수를 간직한 사람...
 이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다는 말로도 오자랄 정도로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 이름... 우리 엄마입니다



무역센터금융센터 박세원 차장

웃자꾸나 흥대리아

업다고 슬퍼하지 말꺼리-
 있다가도 업는게 실직이란다-
 낮다고 조절하지 말꺼리-
 높다가도 낮은게 KPI 순위란다-
 개졌다고 의기소침하지 말꺼리-
 칭찬하다가도 갑자기 깨는게 너희 팀장야만다-
 업서받았다고 좋아하지 말꺼리-
 그게 인원인지 칭찬업서인지 아직 모른다-
 인생사에 부침이있듯이
 은형일도 부침이 있으니
 하나하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면 오래 못산단다
 흥대리아, 그러니 이제라도
 흥하게 웃어보자꾸나-



바람

나무라고 뭐가 다를까
 바람불면 후성이는 것을
 사람이라 뭐가 다를까
 바람불면 후성이는 것을
 천년의 뿌리내린 나무도
 살랑이는 바람앞에 흔들리고
 백발노인의 내일을 위한 기도는
 호풍의 문턱 앞에 주저앉는다

천년의 뿌리내린 나무도
 살랑이는 바람앞에 흔들리고
 백발노인의 내일을 위한 기도는
 호풍의 문턱 앞에 주저앉는다
 오늘 나에게 부는 바람은 무엇인가
 오늘 바람은 내일을 위한 누군가의 대명어이다-

선부동지점 김희락 계장



● 드림백일장 부문 ●

평택금융센터 최재민 과장

너를 나만 바라봐-



서울스퀘어금융센터 원미숙 대리

잊을안하면
 다시 찾아오는
 나를 떠난다는
 너의 소식!

언제쯤이면
 나는 너를 잊고
 등보해 질 수
 있을까



- IRP 계약이전 -

기대와 신뢰를 받는 운용사로의 발전

우리자산운용

김진평

우리자산운용 채권1팀 과장

2020년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한 해로 평가받는다. 코스피 반등에, 개인투자자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시장에까지 저변을 넓혀갔다. 자연스럽게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 여기에 우리금융그룹의 한 식구인 우리자산운용도 화답했다. 기존보다 10단계 이상 상승한 브랜드 평판 9위 기록, 베스트 운용사 선정(2021 매경 증권대상)을 거머쥐며 강점을 드러내는 중이다.

글: 김민선 사진: 정우철(스튜디오집)

| 회사 소개 | 우리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은 종합운용사로서 전통자산인 주식, 채권 투자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상품, TDF, ESG 펀드 등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 및 운용 중이다. 1989년 중앙투자신탁을 모태로 출발한 자산 운용 명가로 2019년 우리금융그룹 계열 운용사로 안정적인 운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종합자산운용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채권1팀 김진평 과장 |

우리자산운용에서 고객의 안정적인 채권투자 및 수익률을 위해 노력 중인 채권운용본부 3개의 팀 중 채권1팀에 소속돼 있다. 김진평 과장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채권형 펀드를 운용하며, 또, 우리자산운용 내 Macro Analyst로서 시장 전망과 전략 작성을 맡았다.

고객이 인정하는 '베스트' 자산운용사

올 봄, 우리자산운용에 겹경사가 이어졌다. 먼저 연간 수탁과 증대액 초과 달성을 이뤘다. 3월 기준 수탁고가 25조 원 이상을 돌파했고, 여기에 브랜드 평판 9위도 기록했다. 이번 기록은 한번에 10단계의 순위를 오른 '의미있는' 성적표였다. 이뿐만 아니라 매경 증권대상 펀드부문에서 베스트 운용사로 우리자산운용이 선정됐다. 수익률에 대한 평가가 최우선으로, 3년, 5년 중장기 투자가 많은 만큼 재무건전성, 경영안정성, 운용연속성, 소송 및 제재 현황 등도 평가항목에 포함됐다.

"많은 고객님들이 저희를 신뢰하고 소중한 자산을 맡겨 주신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시장 역사에 남을 정도로 높은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고객님들이 투자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수의 소규모 자금으로

이루어져있는 공모펀드의 경우 저희가 한 분 한 분 운용 사항을 상세히 설명 드리고 의견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 이상 채권형 공모펀드를 운용하면서 여러 시장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보여 왔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변함없이 신뢰해 주시는 고객님들에게 꼭 감사의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ESG' 이슈 발맞춰 각 영역에서의 ESG 펀드 운용

우리자산운용은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된 지 올해 3년차로, 편입 이전부터 안정적인 운용 경쟁력을 인정 받아왔다.

편입 이후에는 고객과의 접점이 확대돼 공모펀드 판매가 용이해지면서 상품 개발은 물론 이전보다 고객 니즈 반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이는 무엇보다 2030 젊은 세대들의 투자, 기관과 기업의 ESG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그룹 편입 이후 내부 통제체계, 업무 프로세스 등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이밖에도 그룹 편입 이후 고객 니즈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리테일 고객의 경우 전반적으로 금융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2030세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투자자 저변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ESG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미래에는 일반적인 모든 투자가 ESG요소가 고려된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자산운용도 이에 발맞추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탄소중립선언, 책임투자원칙 제정 등 ESG 정책을 도입하고 주식, 채권, 글로벌 각 영역에서 ESG 펀드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직접 관계없이 공유하는 조직문화가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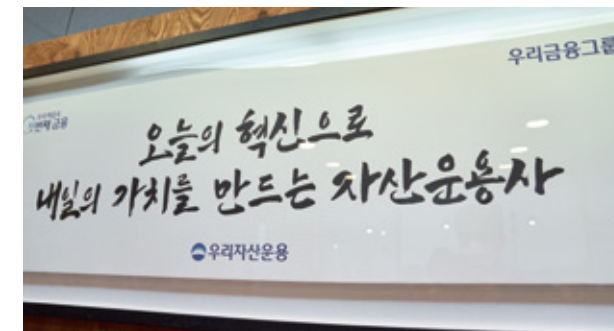
우리자산운용의 강점에 대해 김진평 과장은 '수평적인 분위기의 토론 문화 발달'을 꼽았다. 투자 의사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많은 리서치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우선되거나, 원하는 방향의 자료나 근거만을 취사선택을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내부에서 의견을 상정하고 자유롭게 토론한다.

"확증 편향(確證 偏向)에 빠질 위험이 있는데 저희는 어떤 권위나 직급을 떠나 최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지요. 또 저는 채권본부에 속해있지만 여러 운용본부가 함께 논의하는 자산배분위원회, 우리금융지주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룹 '하우스뷰' 등 다양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우리자산운용의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받는 운용사, 장기간 안정적인 초과 수익을 달성을 목표로

우리자산운용은 더 나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SNS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 내부 소통 및 시너지 증대를 위해 우리은행에서 유입되는 고객을 위한 PB, 상품 담당자를 대상으로 펀드에 대한 설명과 투자 프로세스 전략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채권운용본부는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하면서 고객의 수요에 적합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운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채권운용본부는 운용 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인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서치부터 포트폴리오 구성 및 매매에 이르기까지 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투자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새롭게 연구되는 투자 기법 등을 연구하고 운용에 접목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메타버스(METaverse)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세계

정리: 브랜드ESG그룹 박해철 과장 자료 제공: 디지털전략부 함승현 대리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와, 가공이나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월한 3차원의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Metaverse)는, 우리가 핵심 고객층으로 타깃팅하고 있는 MZ세대가 열광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등·하교 제한, 사이버 강의 등 변화하는 삶의 방식이 메타버스에 대한 MZ세대의 관심도를 더 쉽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고 분석된다. 기성세대에게 친숙하게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알고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1999년에 개봉했던 영화 매트릭스 속 사이버세계가 메타버스의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속에서 사람들은 매트릭스라는 사이버세계에 접속한 상태로 이 세계가 현실인 것으로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 사이버세계를 메타버스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영화 속 매트릭스 세계는 기계로부터 인간이 통제된 부정적인 사회를 묘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현대 사회 속 메타버스의 활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미국 가수 트래비스 스콧의 온라인 콘서트를 떠올려볼 수 있다. 그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내에 구현된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무려 1,230만 명의 관객이 동시 접속하는 등 총 2천만 달러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활용된 스콧의 아바타는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를 착용했는데, 현실세계에서 실제 해당 운동화의 매출이 상승하는 등 성공적인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한 명품 브랜드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 하나인 '제페토'에 그들의 브랜드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서 아이템을 판매 하는데, 방문자가 한달만에 1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성황리에 활용 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선거유세나 청와대의 어린이날 초청행사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해 MZ세대의 관심도 제고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더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기술의 발전으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점점 더 흐려지면서 인터넷의 다음 세대로 메타버스를 꼽기 시작하는 추세인 바,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서도 메타버스 시장이 2025년에는 현재의 6배인 2천팔백억 달러까지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해 빠르게 반응을 하는 MZ세대가 이미 메타버스 이용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를 감안할 때 이들을 잡고자 하는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권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신한금융 그룹경영회의에서는 메타버스라는 제목의 책이 소개되었고, 신한카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마케팅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한다. 메타버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플랫폼은 바로 미국 청소년의 55% 이상이 즐기는 게임플랫폼인 '로블록스'이다. 이용자들은 이 안에서 만나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다가 같이 게임을 하고, 그 게임이 지겨우면 로블록스 안의 다른 게임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 안의 게임들은 모두 사용자들이 직접 만든 것이고, 게임 판매를 통한 역대 수익을 내기도 한다. 월간 로블록스 이용자 수는 1억6천만 명, 일간 이용은 4천만 명 수준으로 Z세대는 유튜브보다도 로블록스에서 3배의 시간을 더 보내며 열광하고 있는 추세이다.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예를 국내에서 꼽아본다면 네이버사의 제페토 또한 거론할 수 있다. 제페토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의 3D 확장 버전으로, 글로벌 누적 이용자수는 2억 명을 돌파했으며 그 중 80% 이상은 10대 이용자인 점을 주목할 만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가장 손쉬운 접근법은 역시 기존의 메타버스 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MZ세대들에게 금융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가상브랜치를 메타버스 내에 구현하여 그 속에서 금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은행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은행 본사를 메타버스에 구현하여 방문할 수 있게 하고, 그 안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나 대외활동을 알리는 등의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인터넷은행의 등장과 빅테크, 핀테크의 도전으로 전통적 은행의 기능이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받는 시점에서 그동안 가상현실(VirtualReality)이라는 말로 표현되었으며, 이제는 좀 더 진보된 개념의 용어로 사용되는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3차원 네트워크화와 맞물려 볼 때 향후 IT 산업, 그리고 나아가 금융산업에 있어도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뛰어들어 보다 집중도 있는 마케팅 기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특히 MZ세대를 유치하기 위해 은행 밖의 고객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MZ세대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직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결국 고객들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MZ세대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감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우리가족 마음톡!



우리가족끼리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메신저!

받는 분에게 메시지와 커피 기프트콘을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가족에게는 우리가족의 응원이 보약입니다.

To. 민락동지점 **윤희숙** 피크타이어

희숙이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그냥 기분이 좋고 마음이 푸근해진다^^
희숙아!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사랑한다~



From
희룡역지점 이화남 부지점장

To. 대화역금융센터 **안지훈** 과장

나의 UC 메이트 안과장님,
매일 하루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친한 동기 형이 있다는 건,
회사 생활하는데 정말 커다란 힘이고
선물인거 같아.
앞으로도 좋은 일 가득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잘 살아보자!!
항상 고마워



From
빅데이터사업부 선지현 과장

To. 트레이닝부 **조현진** 과장

코로나 핑계로
가끔 안부만 물어서 죄송하지만
조만간 뽀뽀를 바라며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커피 한잔하고 힘내세요!!!!



From
소비자보호부 박한진 대리

To. 세종로금융센터 **최윤진** 대리

항상 든든하고 고마운 동기 마이윤♡
요즘 컨디션도 안좋아서 몸이 많이 힘들지?
복직하고 정신 없고
너랑 많은 얘기를 못나누지만
너는 항상 나한테 위로가 돼.
메신저에서도 내가 물어볼 것만 썩
물어보고 바쁘다고 대답도 잘 못하고
미안해^^ 우리 얼른 만나서 회포 풀자~!!
건강 잘챙기고 힘내자^^



From
미아역지점 김유리 대리

To. 수유동금융센터 **한동희** 계장

수유동으로 떠난 동희아~~
어디서든 잘 적응하는 너가 자랑스러워!

★
유쾌하게!
밝게!
씩씩하게!
지금처럼 빛나도록
★



From
연금사업부 성인혜 계장

To. 파주금융센터 **김보람** 대리

온리원 퇴근메이트 보람이에게
집이 같은 방향이라는 이유로 매일
나의 퇴근을 책임져 주는 올 보람양!
라디오 붐디제이가 틀어주는 야단스런
음악을 들으면서 나와 함께하는
퇴근 시간이 이제는 나에게
하루중 가장 편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거 같아~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언제나 네가 행복하길 기도할게~~



From
파주금융센터 홍경미 주임

To. 창원공단금융센터 **강영재** 계장

친형 같은 우리 영재 형~!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다 믿어주고 응원해 줘서 항상 고마워!
거리가 멀어서 자주 못 보더라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항상 든든해 ㅎㅎ
커피 한 잔으로는 부족하지만,
그 몇 천 배 만큼인 제 마음 전달해드립니다~!



From
연신내지점 김동희 계장

To. 암사동지점 **주유진** 계장

조에서 항상 에너지이저 역할 하는
유진이! 힘들 때 격려해주고 좋을 때 같이
웃어주는건 역시 동기밖에 없는 것 같아!!
매번 고마워~!!
연수원에서 그룹연수하면서
카드 획획 던지던 영상 찍은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 반이나
되었네ㅠㅠㅋㅋ 그리운 그 때처럼
곧 더운 여름이 되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면서 힘내자!! 주계장 화이팅!



From
테헤란로금융센터 고용현 계장

To. 세이지점 **이주희** 대리

우리 주희언니~ 언니를 만나서 함께
일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들이었는데...
지금은 멀리 떠나있어 만나기도 어렵고
너무 아쉽네. 우리의 추억이 가득했던
가락본동지점은 비록 없어졌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아름다운 추억은 영원하길 바라.
언니가 너무 보고싶고
만나서 수다 떨고 싶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From
신월동지점 김혜빈 대리

To. 녹산공단지점 **이미선** 차장

보고 싶은 이미선 차장님에게
회사생활을 하면서
뭔가 멘붕에 처하거나 고민이 될 때마다
존철살인의 한 문장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차장님!
집도, 지점도 멀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만나 뽀뽀도 못하지만,
늘 메신저에선 함께인 거, 아시죠?
늘 건강하시고 조만간에 꼭 한번 만나요~!

From
부곡동지점 이유정 대리

신청방법

매달 행내 포털 전체 게시판에서 '우리메신저' 팝업창이 보이면 클릭하세요.
다음호에도 우리가족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WOORI가 지킨다 시즌3

일상 속 ESG!

2015년 코스타리카 해안지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이의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힌 채로 발견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8년 11월 전북 부안의 앞바다에서 잡힌 아귀 배에서 20cm 플라스틱 생수병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생선 속의 미세 플라스틱, 바다 한가운데의 쓰레기 섬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증가한 음식 등 포장용기 일회용품으로 인해 더욱 더 심각해진 쓰레기 대란 등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 '♻️환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글: ESG기획부

올해도 이어지는

'맑고 깨끗한 지구 WOORI가 지킨다!'

매년 4월 22일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의 날(Earth day)입니다. 지구의 날(Earth day)을 맞아 환경보호 캠페인 '지구는 WOORI가 지킨다' 시즌3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환경보호 캠페인에서는 장시간 자리 이동 시 모니터 끄기, 퇴근 시 공용 사무기기 전력 차단 등 에너지 절약 활동과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와 머그컵 사용하기, 본인 우편 청구서 및 안내서 이메일로 받기, 비닐봉투 대신 에코백 사용하기 등 우리 임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보호 활동들과 'Do Green'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무관심으로 낭비되는 에너지와 자원을 아끼기 위함입니다. 'Do Green' 이벤트에 선정되신 직원 소속 부점에는 우리금융그룹 가치체계가 인쇄된 머그컵을 선물로 드립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할 수 있는 지구 지키기. 맑고 깨끗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함께해 주세요! 'Do Green'

우리인 친환경 생활 실천 다짐 서약

우리는 우리금융그룹의 임직원으로서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 속 친환경 생활 실천으로 미래 세대에게 맑고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 첫째** 우리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 보호에 적극 동참합니다.
- 둘째** 우리는 이석 시 모니터 끄기, 퇴근 시 전산/사무기기 전원 차단을 생활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앞장섭니다.
- 셋째**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천함으로써, 자원순환에 기여합니다.
- 넷째** 우리는 위 사항들 외에도 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을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생활을 꾸준히 실천합니다.



참고 사항

😊 이런 물품 _____ 좋아요

- 의류
- 가방
- 신발
- 도서
- 다리미
- 태블릿

☹️ 이런 물품 _____ 안돼요

- 영유아 의류
- 카세트
- 유모차
- 침구류
- CD
- 대형가전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하는 중고물품 기부캠페인

자원 순환 사용을 위해 4월 22일부터 5월 31일 까지 중고물품 기부 캠페인도 함께 진행됩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중고물품을 기부해주시면 물품들을 모아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합니다. 전달된 중고물품은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되며 발생된 수익금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부한 물품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니 자원도 아끼고, 소외계층도 돕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한 1석 3조, 친환경 나눔 활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낭을 통해 보낼 수 있는 크기의 물품만 기부 가능하며, 기부 물품에 관한 세부 기준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쯤 캠핑 시대,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캠핑의자 만들기

기업금융솔루션부 정의영 계장 & 연신내지점 김동휘 계장 & 혜화동지점 조은빈 계장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계절, 어느새 초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나들이가 더욱 간절해지는 때가 온 것이다. 평소 캠핑과 목공예에 관심이 많았던 3명의 직원들에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다. 평소 원하던 두 가지 소원을 한꺼번에 성취하는 날이었으니 말이다.

글. 이경희 사진. 정우철(스튜디오집)



행복한 동기들의 신나는 도전

캠핑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캠핑은 '장비빨', 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캠핑을 가면 보란 듯 새로 장만한 유명 브랜드 장비를 설치하고 그 모습을 부러워하며 이것저것 묻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으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오늘 방배동 가구공방에 모인 정의영 계장과 조은빈 계장, 김동휘 계장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다.

'생애 첫 목공 도전' 그리고 그 어떤 브랜드와도 견줄 수 없는 특별한 '나만의 캠핑 의자 만들어보기'가 바로 그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도착하자마자 "오늘 셋이서 캠핑 의자 하나를 만드는 것이냐"고 묻는 정의영 계장의 다급한 질문에 관계자들이 뺨 터진다. "아니다, 각자 하나씩 만들어 가져가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듣자 모두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내심 셋이서 하나를 만들면 이걸 대체 누가 가져가야 하나, 고민을 했던 듯.

본격적인 만들기에 앞서 오늘 강의를 맡은 크레이트 가구 공방의 황태임 사장이 직원들에게 퀴즈를 하나 냈다. 문제는 네모로 잘린 나무토막을 두고 '부산물'로 만든 것과 '원목'으로 만든 것을 구별해 보라는 것이다. 머리를 맞대고 설왕 설래하며 한껏 고민하는 세 사람. 결국 정답률 75%를 기록해 상품으로 걸린 캠핑스트랩을 획득하고 덤으로 나무와 나무의 성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익혔다.

*클래스 운영과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 및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캠핑 의자를 만들어볼 시간이다. 모두가 두근 두근하는 마음으로 작업실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 짧은 시간에도 이야기와 웃음이 끊이지 않으니 직장 동료라기보다는 10년지기 절친처럼 보인다.

“저희는 2018년에 함께 입행한 동기입니다. 연수를 받을 때 같은 조였던 인연으로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총 8명 회원들이 달마다 회비를 내면서 상호 이탈(?)을 막고 있죠.”

만형 정의영 계장의 말에 두 사람이 웃음을 터뜨린다.

나무로 만나는 새로운 DIY 세상

작업대에는 재단된 나무들이 나란히 놓여 있다. 조은빈 계장과 김동휘 계장이 한조가 됐고 정의영 계장이 작업대 하나를 독차지 했다. 먼저 지시에 따라 직각자를 이용해 나사를 박고 목봉이 들어갈 위치를 표시한다. 표시를 하고 난 뒤에는 표시한 선에 맞춰 나무 귀퉁이를 톱으로 잘라야 한다.

“몸에 힘을 빼고 슬금슬금 자르라”는 주문에도 첫 톱질인지라 잔뜩 힘을 주더니 요령을 익히고 난 뒤에는 힘을 빼고 다들 편안하게 쓱쓱 쓱쓱 톱질을 한다. 하루의 대부분을 종이와 돈을 만지는 세 사람에게 나무를 만지는 느낌은 아주 특별해 보인다. 특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연의 질감이 더없이 좋은 눈치다.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대패질과 사포질도 즐거워했다. 정의영 계장은 작업하는 찻잔이 폰으로 두 동생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 주고 김동휘 계장은 “누나, 도와줄까요?”라며 조은빈 계장의 작업을 수시로 살핀다. 조은빈 계장은 씩씩하고 센스있게 주어진 몫을 해결해 간다. 세 사람의 성격이 목공예 그대로 투영되는 모습이 흥미롭다. 동기로 행원 생활을 함께 시작한 이들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된 지 오래다. 업무적인 도움은 물론, 행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충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친구들로 서로의 버팀목이 돼 주기 때문이다.

“은빈이와 동휘는 정말 친동생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싫은 소리 한번 안 하는 착한 성품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의영이 형은 박학다식한 인재예요. 은행 업무 외에도 제가 많이 기대고 있어요. 은빈 누나는 털털하고 영동하고 밝은 매력을 가져서 함께 있으면 늘 즐겁고요.”

“의영 오빠는 굉장히 리더십이 있어요. 섬세하면서도 허당기가 있어서 매력적이죠. 동휘는 정말 착하고 의젓한 친구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든직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이나 한 듯 고마움과 칭찬을 쏟아낸다.

나만의 캠핑 의자로 즐기는 나만의 힐링타임!

캠핑 의자가 착착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다. 처음 사용해보는 목공 장비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도 잠시, 서로 돕고 물어가며 세 사람 모두 능숙하게 드릴을 사용한다.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집안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있다는 정의영 계장의 맹활약이 특히 돋보인다. 드럭 드럭 거침없는 드릴 소리가 묘한 해방감까지 안겨주니 이게 바로 목공의 맛이라고 너도나도 입을 모은다. 마지막으로 질기고 튼튼한 캔버스천을 의자에 고정시켜줌으로써 오늘 작업 끝! 모두가 박수와 환호성으로 스스로를 칭찬한다. 자신이 이걸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 듯 캠핑 의자에 앉아보기를 반복하고 폰을 꺼내 수십 장씩 사진을 찍고 찍어주니 잔치판과 다를 바 없는 흥이 물씬 풍긴다. “저는 원래 캠핑을 좋아했어요. 동호회에도 가입해서 회원들하고 열심히 다녔고 장비 욕심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캠핑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또 목공예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나무를 이용한 가구로 새 집을 자연친화적으로 꾸며보고 싶어요.” 정의영 계장의 말을 조은빈 계장이 이어받는다.

“저는 한강공원에 가서 캠핑 기분을 내고 싶어요. 돛자리 정도는 들고 나가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캠핑장비를 가져와서 즐기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만든 의자를 들고 한강공원에 가서 힐링해보고 싶어요.” 김동휘 계장은 “코로나19 때문에 갈 데가 없잖아요. 캠핑에 가서 ‘불멍’을 하는 게 유행이리는데 저도 오늘 만든 의자를 갖고 캠핑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라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인다.

일상과 업무를 잊고 오로지 ‘자르고 뚫고 조이고 박고 기름칠’하는 목공예 폭 빠졌던 오늘 하루,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기에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세 사람이 입을 모은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나머지 조원들에 대한 애정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사랑하는 우리 조원들, 종필, 영재, 정욱, 순호, 예진!!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 바로 만남시다!”



MINI INTERVIEW

기업금융솔루션부 정의영 계장

정말 만족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완벽주의 성격 때문에 일할 때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목공 작업을 하면서 실수를 수정할 수 있다는 걸 본 게 인상적이었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기들과 우정을 확인할 기회를 주신 우리은행에 감사드립니다.

헤화동지점 조은빈 계장

시작할 때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무를 만지다 보니 온기와 손맛이 느껴지더라고요. 과정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서 몰입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모임을 주선한 입장에서 동기들 모두가 행복해해서 더 뿌듯했어요.

연신내지점 김동휘 계장

친한 동기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작업하는 내내 나무 냄새도 좋았고 손끝에 느껴지는 감촉도 좋았어요. 만든 의자를 집에 가져갈 수 있어서 두고 두고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정의영
기업금융솔루션부 계장

조은빈
헤화동지점 계장

김동휘
연신내지점 계장

“ 불가능했던 오입금을 반환되게 해주셨습니다 ”

글: 김민선 사진: 정우철



김보경
창원금융센터 과장

고객 만족 이야기

저는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인수하게 받아 모든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A팀장에게 송금해야 할 노임을 외국인 노동자 B팀장에게 송금하게 됩니다. 금액은 대략 9백만 원 정도였고, 내용을 인지하자마자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송금 오류로 인한 반환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B팀장에게 연락을 취해 다시 돌려받으면 간단한 일이었지만, B팀장은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송치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면회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팀장의 통장과 직불카드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포기하려던 중 창원금융센터 김보경 과장님이 절차와 서류 그리고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근 우리은행 지점까지 연결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도움을 받게 되며 오입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전합니다. 감사 인사가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3월 입행해 현재 창원공단VG의 창원금융센터 예금팀장으로 근무 중인 김보경입니다.

Q 착오 입금 예금주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계셨다 하니 난처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행에 오송금 반환 요청이 접수되고 확인을 해보니 예금 통화불명 상태였습니다. 이에 반환청구 요청은 거절 통지됐었지요. 현장의 직원들에게 B팀장님을 수소문해 자금을 돌려받으시라는 안내밖에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B팀장님의 불법체류로 수감 상태였던 것이 확인되면서 다시 협조를 구해오셨습니다.

Q 어떻게 해결책을 찾으셨나요?

먼저 외국인보호소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렸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면회가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도중에 B팀장님이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이관됐고,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거듭 설명과 면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때, 의정부에 외국인 전용 금융센터인 우리은행 의정부외국인금융센터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의정부외국인금융센터 전준호 소장님께 업무 협조를 구하고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수차례 전화를 드려 요청과 양해를 구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측은 우리은행 임직원 동반, 법인의 대표직원, 법인의 면회 요청 공문 작성, 외국어 통역사 동반조건으로 면담을 승인했고, 면담에서 반환 의사 확인 후 무사히 종료했습니다. 최초 2월 8일 접수돼 3월 9일에야 자금 반환이 완료됐습니다.

Q 이번 일을 계기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요?

실무를 하다 보면 외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입장을 잘 알고, 이해하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그 자금 담당자였다면,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 졸였을까 라고 말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고객님 말씀에 경청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칭찬

“고객을 배려한 서류 리스트 덕분에 편안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칭찬 직원
하해성 대연동지점 대리

우리은행 대연동지점 하해성 대리님에게 대출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인근 지역 재개발 대출 관련 내방 고객이 많아서인지 혼자서 개인대출 상담 업무를 보시는 듯 보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방문 전에는 긴장과 걱정이 많았는데 상담하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졌고, 필요한 부분만 짚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해 출력해 주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 업무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메모를 하는 쪽이 고객이었었는데, 꼼꼼하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하해성 대리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은행에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의 글을 남겨봅니다. ☺

1980~2021 설렘, 그 추억이 공존하는 곳, 제주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만해도 신혼여행지 1순위는 하와이, 발리 등이 꼽혔다.
국내 신혼여행지는 제주도 이외에는 언급되는 여행지가 없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제주도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제주도 외에 부산, 여수, 거제, 통영 등도 신혼여행객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
원조 신혼여행 메카인 제주의 요즘 신혼여행은
어떤 모습인지, 행복한 어느 순간을 공유하고자 한다.

글: 김민선 사진: 인사부(파견) 홍영택 대리, 한국관광공사

다시 각광받는 신혼여행지 1순위 제주도

포스트코로나시대 제주도가 신혼여행지가 된 데에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여행' 느낌을 낼 수 있는 곳이자 비대면 관광이 가능한
곳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식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거나 언제 다시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결혼식을 예정대로 혹은 서두르는 이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결혼식 비수기로 여겨지던 7-8월에도
제주도를 찾는 신혼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복에 드레스 차림 제주행

제주도 신혼여행은 1980년대 트렌드였다. 40년이나 지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제주도는 신혼여행 트렌드 관광지 중 하나가 되었다.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간 뒤 값비싼 호텔에 묵으며 제주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는 만큼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야우고가의, 첫 비행기 탑승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 신혼여행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여행지였다.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해외 비행기 탑승은 일반적인 신혼부부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까만 양복차림의 남성과 밝은 색 원피스나 투피스를 입은 여성은 영락없는 신혼부부였다. 이에 제주도로 신혼여행지를 선택한 요즘 세대들은 장롱 속에서 발견한 앨범 속에 부모님 제주도 신혼여행 사진을 똑같이 재현해 보기도 한다. 실제 부모님의 제주도 신혼여행 사진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한복 등을 대여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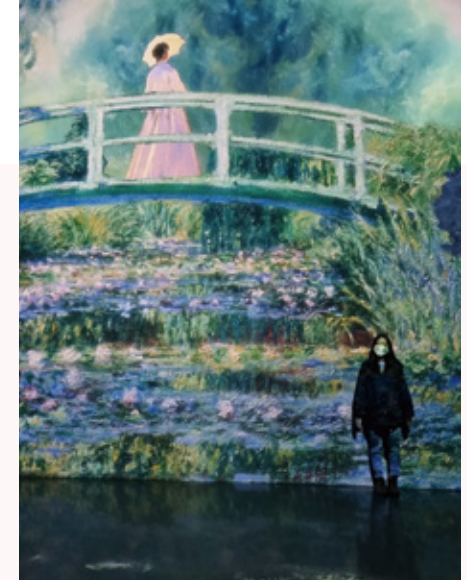
다른 모습이지만 특별한 추억과 사진은 여전

천지연 폭포, 정방폭포, 성산일출봉 주요 관광지에는 신혼부부로 북적댔다. 카메라도 귀한 시절이어서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사진사들이 주요 관광지에 있었고, 제주의 택시기사들이 촬영을 해주며 부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지금의 신혼부부들도 주요 관광지를 찾기는 마찬가지다. 기존의 신혼여행 트렌드는 다양한 액티비티나 먹거리에 초점을 맞춰 기획돼 있었다. 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최근에는 고급 숙박시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것이 특징. 한번 뿐인 신혼여행이라는 점과 사람이 많은 관광지를 배제한 고급 숙박시설이 인기를 얻고 있다 것이 여행업계의 설명이다.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출발 전 상에선, 미래를 기약하는 이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임은 변함없다. 미래를 약속하며 두 손을 맞잡으면서 말이다. ☺



4 성산일출봉

제주하면 먼저 한라산 다음으로 많이 회자되는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은 무료와 유료탐방구간으로 나누어진다. 무료탐방구간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 매표소를 기준으로 왼쪽이 무료탐방구간으로 오르막이 없어 걸어서 다니기 편리하다. 전망대에서 보면 우도 및 해녀물길 공연장, 보트장, 우뚝개 해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성산일출봉 등반을 못한다 뿐이지 주변 경관은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멋진 곳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 더없이 좋다.



4 빛의 벵커

빛의 벵커는 매해 주제를 바꿔 상시 운영하는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자연의 경관의 제주도만이 아니라 이색 관광지로 눈과 귀가 즐거운 공간을 누리고 싶은 이들이 선호하는 대표 장소가 됐다. 과거 국가기간 통신시설이었던 벵커를 탈바꿈해 매년 주제를 바꿔 상설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신혼여행 기간에는 개막작 클림트가 전시 중이었다.) 이색적인 전시관인지라 2018년 개관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여기에 국내 유일 운영되는 전시라서 요즘 제주를 찾는 이들의 핫스팟이기도 하다.

MINIINTERVIEW

“신혼여행 다녀왔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력교류로 우리에프아이에스 공동개발부에 근무 중인 홍영택 대리입니다. 지난 4월 3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지로 제주도를 선택한 이유는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주도 신혼여행을 선택했습니다. 신혼여행이니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게 오랜만이었고, 비행기를 탔지만 오래 비행을 하지 않아 오히려 꼭 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행 코스는 어떻게 정하셨나요?

신혼여행 코스를 미리 알아보고 갈 곳을 정하기보다 계획없이 가서 폭 쉬면서 그냥그냥 가고 싶은 곳을 갔습니다. 제주도에 이미 이국적이고, 가고 싶은 곳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가정을 꾸릴 계획이신가요?

화려하진 않지만 향기 가득한 정원처럼 사랑스럽고 따스한 가정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 천국의 계단

성산의 한 카페에 자리한 천국의 계단. 전국 유명 카페에 있는 천국의 계단과 달리 LED조명 덕에 밤에도 오를 수 있다. 성산일출봉과 바다를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 커피, 베이커리 맛도 좋고 계단 외에 카페뷰가 훌륭해 찾는 이들이 많은 곳이다. 입지적으로도 좌우로 우도와 성산일출봉을 조망할 수 있으며 성산일출봉, 우도, 올레코스, 성산항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가족끼리 왜이래? 가족이라서 더 불편한

우리 가족

가족은 하나의 모빌과 같아서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까지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 이해할수록 지쳐가고, 어른이 되어도 혹은 어른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 행복의 상징이지만 상처의 근원이기도 한, 두 얼굴을 지닌 가족 또한 가족의 얼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는 그대로 가족을 보듬는 것.

글: 편집실 참조. <가족의 두 얼굴>(저자 최광현, 출판사 부키)

부모, 가족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고 분리하며 겪는 갈등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의식과 무의식에 형성한다. 부모의 가치와 신념을 무조건 믿으며 그것을 당연시 여기며 산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정체성과 인간의 발달에 관한 '발달 단계 이론'이 이를 설명한다. 8단계의 단계로 이뤄진 발달 단계 이론의 1단계는 출생 이후부터 1세까지 양육자의 영향력이 큰,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태를 말한다. 2단계도 마찬가지다.



어색한 가족관계를 허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가족이 되는 방법

첫째, 대화할 때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며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대화한다

아내가 이야기 할 때 TV를 계속 보고 있는 남편, 아이가 말하는데 계속 집안일을 하면서 이야기 하는 엄마. 이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족 간의 대화는 건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 할 때 상대방에게 관심과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

둘째, 객관적인 상황-감정표현-기대요청의 존중 대화를 한다

내가 가족에게 일주일동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 가족(상대방)에게 물어도 좋다. 그 말을 들었을 가족의 기분이 어땠는지도 묻는다. 은연중 하게 되는 비난 등이 서로에게 벽을 쌓게 되는 것이다. 대화 도중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 대화의 방향이 틀어진다면, 객관적인 상황, 느껴지는 내 감정, 상대방에게 바라는 기대를 요청하는 대화를 해보자.

셋째, 가족끼리의 단합을 시간을 마련한다

우리 가족은 일년에 한번 여행도 가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은데... 그럼에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피상적인 소통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호작용이 없는 시간만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 등 아이가 없는 집에서 보드게임, 배드민턴, 탁구 등의 상호작용이 많은 스포츠와 게임이 어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운동만큼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없다. 운동이 어렵다면 한 주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며 공감과 격려를 나누고,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시간을 알차게 보내보자.

마지막으로, 불편한 가족, 불행한 부부, 힘든 자녀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결국 상처받은 나와 화해하고,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는 일이다

가족이 겪는 고통이나 문제에 당신의 잘못은 없다. 다만, 그 고통스러운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에는 당신이 있다. 당신 또한 혼자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관계에 매달리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가족관계도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함을 잊지 않는다. ☺

2~3세 때는 자율성이 발달하지만 양육자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 4~6세 때인 3단계부터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므로 책임감을 갖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은 가족이다. 4단계인 11세까지의 시기에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사회규칙 안으로 진입하게 되고 5단계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 혼란에 빠지면서 가족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갈등을 빚게 된다. 점점 더 성장해서 집을 떠났을 때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건강하게 분리할 수 있을 때 가족에게서 비로소 조금씩 독립할 수 있다.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존중한다?

가족이니까!

문제가 있는 부부와 가족을 치료할 때 기본 전제가 있다고 한다. 가족 문제는 각자 배우자가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의 결혼생활과 그때 받았던 상처와 지금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문제가 합쳐져 불만과 짜증, 분노로 일그러진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가족 모두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데서 막혀 있던 문제를 푸는 길이 보인다. 그 실마리를 찾아가는 마중물은 자기애를 되찾는 것이다. 내 안의 상처를 다독이는 위로를 통해 서서히 증상이 나아진다. 감기 낫듯이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는 고통도 분명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노력을 하게 된다. 왜냐면 가족이니까!

당연한 것은 없다. 감사함이 있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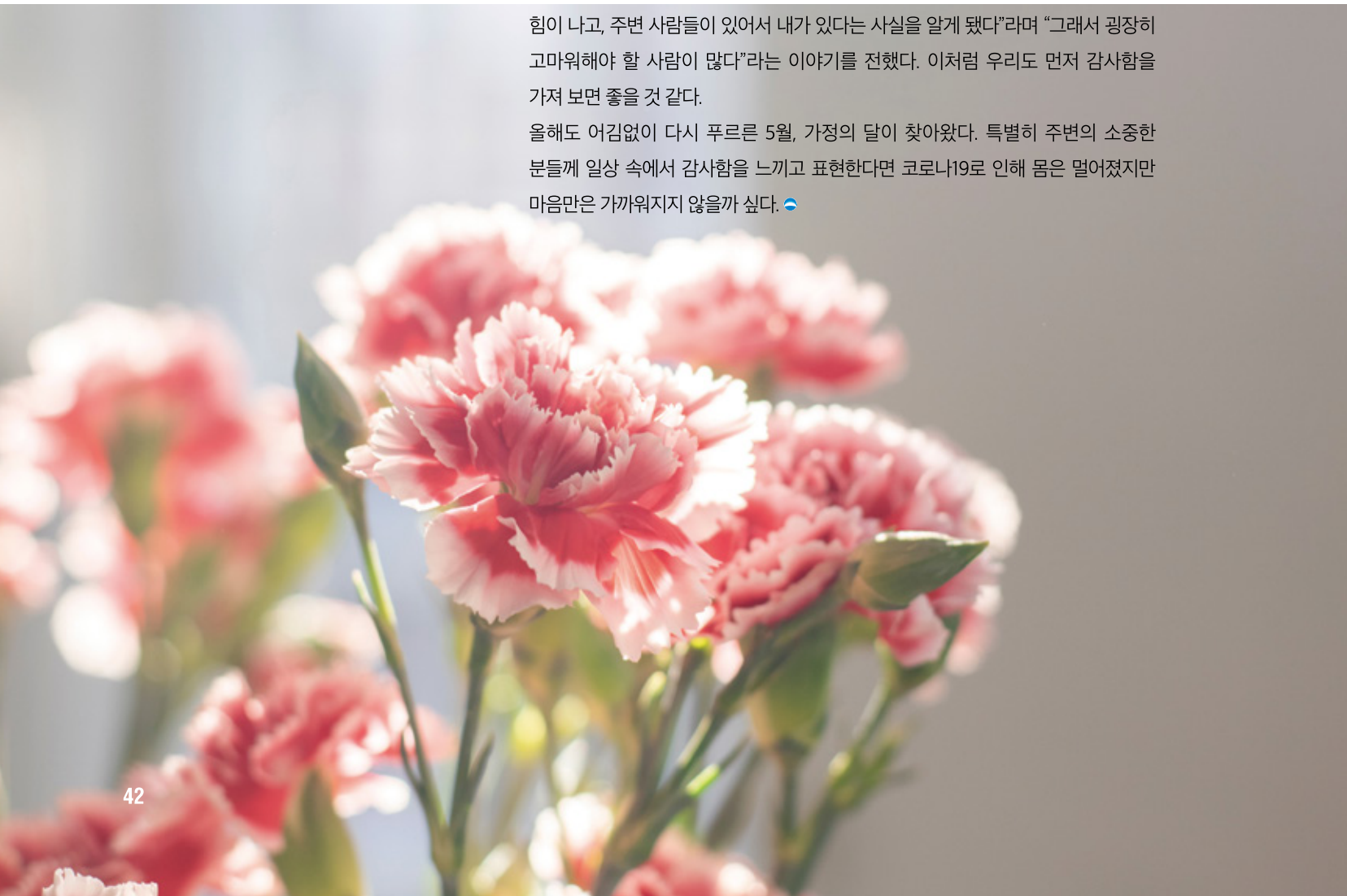
글: 인사부(파견) 황상현 대리

오늘도 눈 코 뜰 새 없는 하루를 보냈을까? 우리는 매일매일 너무나도 당연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일과를 보내고, 퇴근을 하고, 잠자리에 든다. 이렇게 어제-오늘-내일이 별반 다르지 않는 하루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잠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사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사소하지만 알람 소리를 들으면 침대에서 일어나서 가벼운 아침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것, 부모님이 차려주는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출근 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동료들과 지낼 수 있다는 것, 퇴근하고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등 모두 또 다른 누군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단지 익숙해지다 못해 무뎠게 되었을 뿐, 당연하게 생각하며 당연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누리면서 감사함을 갖고 있을까? '힘들 때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부모님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신 은사님에게', '사무공간을 청소 해주시는 청소 아주머니에게'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대체로는 그러지 못한 것 같다.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 덕분에 지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당연한 일을 감사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얼마 전 한 방송에 "감사가 뇌를 바꾼다"라는 주제의 다큐가 방영됐다. 다큐 속 출연자는 "감사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내가 감사할 때 더 힘이 나고, 주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처럼 우리도 먼저 감사함을 가져 보면 좋을 것 같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시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이 찾아왔다. 특별히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만은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다. ☺



함께 만드는 우리가족

애독자 퀴즈

이번 호 행내보를 꼼꼼히 읽었다면 맞출 수 있는 코너! 정답을 <우리가족> 웹진 '독자후기'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QUIZ

최근 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등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

(P22~23 '디지털 나들이' 코너를 확인하세요)

① 메타버스 ② 광역버스 ③ 미니홈피 ④ 메가버스

알립니다

*정정합니다 : <우리가족> 4월호 '우리메신저' 코너에서 만수동 이지훈 계장님에게 전달돼야 할 메시지가 가산디지털지점 조영경 계장님에게 전달됐습니다. 정확하게 게재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우리가족> 편집실이 되겠습니다.

지난 호 정답 ▶

④ 한옥

당첨을 축하합니다!

2021년 4월호

- 기업금융솔루션부 문경식 부부장
- 가락중앙금융센터 박복순 차장
- 도산대로금융센터 석병욱 대리
- 신정동금융센터 이정화 대리
- 화성남양지점 최경혜 차장

웹진으로 만나는 우리가족

우리은행 행내보인 <우리가족>을 웹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QR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우측 상단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디바이스에서 <우리가족> 구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족> 웹진에서 '독자후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족> 제호 왼쪽 옆에 있는 ☰ (세줄)을 터치하면 웹진에서 독자후기를 남길 수 있는 메뉴로 이동합니다. 더 나은 <우리가족>을 위해 좋은 의견 남겨주세요.